

6/30/19

설교 제목: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7장 31-37절

- (막 7: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절관주** 마 15:29
- (막 7: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 (막 7: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 (막 7: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 (막 7: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 (막 7: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 (막 7: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이 이방 지역이므로 이 사건도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귀신들린 어린 딸을 고쳐 주신 사건과 함께 이방 지역에서 행하여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은 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트집을 잡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정결 규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 국경 너머 이방 땅 보니게 지역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만나 그녀의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로를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셔서 본문의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이같은 이적들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 땅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사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막 7: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서는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만나 더러운 귀신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후 그곳을 떠나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 시돈을 거친 후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10 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므로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었으나 유대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지역은 초행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 지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라사인 지방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을 이천 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한 후 이천 마리의 돼지 떼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떠나줄 것을 종용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실때 군대 귀신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 5: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막 5: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막 5: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로 하여금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셨을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막 7: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들린 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해 이미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와서 안수하여 고쳐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막 7: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막 7: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것은 이제껏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무리가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쳐주시는 방법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데 반해 이번에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열리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무리를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명해서 고쳐 주시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같이 침을 사용하는 치료법은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민간 요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미신적이고도 야만적인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무리에서 떨어진 곳에 데리고 감으로써 그가 예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당신이 지금 그를

고쳐 주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어 그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서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실제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예수님이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손을 댈때 예수님이 자신의 귀와 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므로 그에 대한 긍휼과 애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뜻의 아람어 입니다.

그러자 치유가 임했습니다.

(막 7: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 먹고 말 더듬던 자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출애굽의 현상이 지금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 더듬는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mogilavlov'(모길라론)은 성경에서 본 절과 이사야 35:6 절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 35: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 35: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 장에 새출애굽의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35: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 35: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 35: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 (사 35: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 (사 35: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 (사 35: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 (사 35: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눅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 (사 35: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 (사 35: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 (사 35: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mogilavlov'(모길라론)이라는 단어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mogilavlov'(모길라론)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 주시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새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땅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새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출애굽의 현상,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지금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막 7: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예수님께서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 들으면 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새 출애굽의 표적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방인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복하여 유대 민족을 다윗 왕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런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시려고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귀먹고 병어리 된 자의 치유를 숨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경계하면 할수록 저희가 더욱 그 사실을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막 7: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능을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히 놀라며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고 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역사는 새출애굽으로 인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문이 열려 있는 은혜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때가 닫히고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귀가 열리고 말문이 터진 것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눈과 막힌 귀가 열리고 답답한 마음이
열려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시간 우리 모두 데가볼리 지방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의 능력을 힘입어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두운 눈과 막힌 귀가 열리고 답답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